

## EU, 2006~13년 가금류 시장 전망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주요 품목별 시장 상황과 농가 소득에 대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신규 회원국을 포함한 EU-25개국 모두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2013년까지의 중기적 관점에서 볼 때 EU의 농산물 시장과 농가 경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가금류 시장 현황과 전망에 대해 요약하여 소개한다.

### 가금류 시장 전망

2005년도에 가금육 생산은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2006년에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염려 탓에 수요가 줄어들고 따라서 생산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H5N1 계통의 인플루엔자는 2006년 1월에 유럽의 야생조류에서 처음 검출되었다. 야생조류 개체군 내에 그리고 상업적 용도로 사육하는 조류들에게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연합과 회원국 수준에서 조기경보 및 통제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프랑스와 네덜란드 일부 지역에서만(주로 사실상 날아다닐 수 없는 조류들만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이 이루어졌다.

예방조치를 취했으나, 2006년 2월에는 프랑스 소재 칠면조 사육 농장에서 H5N1 인플루엔자가 발견되었다. 그 결과 EU 역외 40개 이상 국가들이 프랑스산 가금류 수입을 금지했다. 유럽 전역에 걸쳐서 두 세 차례 더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사례가 보고됐지만 모두 효율적으로 통제

됐고 조류인플루엔자는 박멸되었다. 그러나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중들의 걱정은 유럽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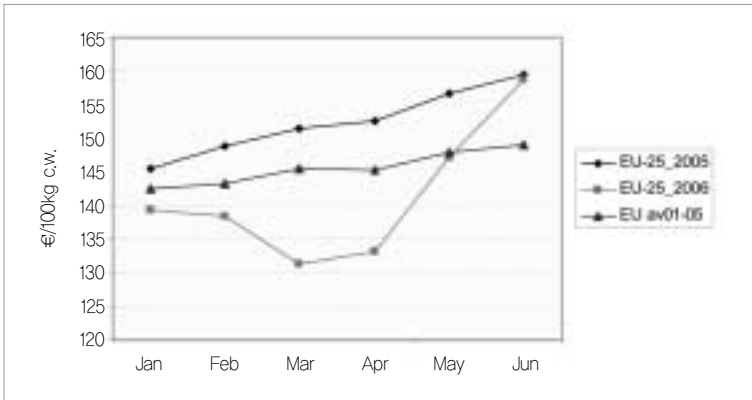
몇몇 회원국들은 가금육 소비량이 현저하게 줄었고, 따라서 민간 부문의 가금육 재고량이 늘고 시장 가격이 하락했다고 보고했다. 2006년 1분기 동안 사료산업 부문의 사료생산량은 10% 감소했다.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인식이 회원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금육 가격 변동도 회원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럽연합 역내 가금육 거래의 흐름이 확실히 왜곡되고 있다. 가금류 부문의 경제적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몇몇 회원국들은 국가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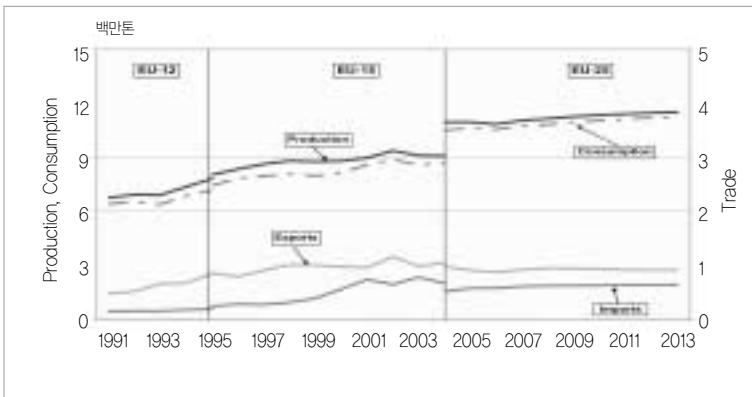
시장의 혼란에 의해 영향을 받은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06년 초 이후로 수출 환급금을 증액했다.

그러나 유럽산 가금류 상품의 부분적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해외 수요 약세에 대해 그러한 조치는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림 1〉 유럽연합 닭고기 가격(2006년 상반기와 과거 수년간 가격 비교)



〈그림 2〉 유럽연합 가금육 시장 전망(1991~2013년)



의 가격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그리고 2001~2005년 동안의 평균 가격보다 6.4%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2006년 3월 시점을 살펴보면 가격은 131.3€/100kg으로, 2001~2005년 동안 같은 달 평균 가격보다 9.8%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현재의 시장 지표에 기초할 때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된 단기적 시장 혼란 상황은 중기적인 전망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금육은 다른 종류의 육류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낙관할 수 있다.

소비자 선호도나 조리 재료로서의 활용 비중 또한 긍정적인 상황을 유지할 것이다. 가금육 1인당 소비량은 2005

가금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 4월에는 계란 및 가금육 공동시장조직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 조치를 통해 소비자 신뢰 상실로 인한 상당한 정도의 시장혼란이 있는 경우 예외적인 시장개입이 허용됐다.

현재까지 회원국들 중 절반 이상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 수단들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 상태이다.

2006년 전반기의 유럽연합 가금류 시장 변동을 살펴보면 2006년 6월의 가격은 2005년 6월

년에 23.2kg였던 것이 2013년에는 24.1kg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규 회원국들에서 소비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EU-25개국의 가금육 수출은 2005년에 6.3% 감소했다. 그 이후 2006~2008년 사이에 단기적 회복을 보인 후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심화로 인해 정체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저비용으로 가금육을 생산하는 국가들이 시장에 등장하고 달러화와 브라질 레알화 환율 조건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